

<2021 지방직 9급 A책형 가답안>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④	①	①	②	③	③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③	②	②	③	④	④	①	②

문 1. 다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력(殷曆) 정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나라에서 여는 데 회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를 영고라 하였다. 이때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 국내에 있을 때의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옷수 놓은 옷모직옷을 즐겨입는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목곽에 안치하였다.
- ② 읍군이나 삼로라고 불린 군장이 자기 영역을 다스렸다.
- ③ 가족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었다.
- ④ 천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문은 부여와 관련된 사료이다.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지낸 것과 흰옷을 숭상한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③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족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었으며,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족 공동 무덤은 옥저의 풍습이다.
- ② 읍군, 삼로 등이 통치한 것은 옥저와 동예이다.
- ④ 삼한에서는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 외에 소도에서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는 천군이 존재했다.

문 2.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북쪽 구지에서 이상한 소리로 부르는 것이 있었다. ... (중략) ... 구간(九干)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으로 만든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알 여섯 개가 있었다. 알 여섯이 모두 변하여 어린아이가 되었다. ... (중략) ...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수로(首露)가 왕위에 올라 (가)를 세웠다.

— 『삼국유사』 —

- ① 해상 교역을 통해 우수한 철을 수출하였다.
- ② 박, 석,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 ③ 경당을 설치하여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다.
- ④ 정사암 회의를 통해 재상을 선발하였다.

정답 ①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금관가야이다. 수로(김수로왕)가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①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에 있어 해상 활동에 유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이 좋은 철도 생산하였다. 철은 무기나 농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덩이쇠는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박, 석, 김 3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한 것은 신라의 초기 모습이다.
- ③ 경당은 고구려의 교육 기관이다.
- ④ 정사암 회의는 백제의 귀족 회의이다.

문 3.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은 도병마사와 (가)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였다. 도병마사에서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었고, (가)에서는 제도와 격식을 만들었다.

- ① 삼사 ② 상서성
③ 어사대 ④ 식목도감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 고려는 당의 영향을 받아 2성 6부의 중앙 관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참여하는 독자적인 두 개의 회의기관을 만들었다. 하나는 대외적인 국방과 군사문제를 관장하는 도병마사이고, 다른 하나는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을 관장하는 식목도감이었다.

[오답 피하기]

- ① 고려 시대의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맡았다.
② 상서성은 6부를 두고 정책을 집행하였다.
③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문 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국 초부터 복진 정책을 추진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가)를/을 견제하고 송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 이에 송과 대립하던 (가)는/은 고려를 경계하여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하였다.

- ①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하였다.
② 고려에 동북 9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③ 다루가치를 배치하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④ 쌍성총관부를 두어 철령 이북의 땅을 지배하였다.

정답 ①

[자료 분석]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거란이다. 거란은 926년 발해의 수도인 홀한성을 함락시키고 발해를 멸망시켰다.

[정답 해설]

- ① 1010년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강동 6주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40만 대군으로 다시 침입(2차 침입)하여 개경이 함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거란군의 후방에서 양규 등 고려군의 저항으로 보급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한 거란은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강화하고 퇴각하였다. 강조의 정변은 목종의 모후인 천추태후와 외척 김치양이 불륜을 맺고 왕위를 빼앗으려 하자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시해한 후 현종을 즉위시킨 사건이다(1009).

[오답 피하기]

- ② 동북 9성 반환을 요구한 것은 여진이다. 윤관이 예종 때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해 동북 9성을 축조했다(1107).
③ 다루가치는 몽골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파견한 감찰관이다.
④ 쌍성총관부는 몽골과의 전쟁이 진행되던 1258년(고종 45)에 회회와 탁청이 고려의 지방관을 죽이고 몽골에 항복하면서 설치되었다.

문 5.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무릇 관직을 받은 자의 고신(임명장)은 5품 이하일 때는 (가)과/와 사간원의 서경(署經)을 고려하여 발급한다.
○(가)는/은 시정(時政)을 논하고, 모든 관원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르게 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

— 『경국대전』 —

- ① 사헌부 ② 교서관
③ 승문원 ④ 승정원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 조선 시대 사헌부와 사간원을 합쳐 양사(대간)라 부르는데, 양사는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하는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교서관은 궁중의 서적을 간행하는 기관이다.
③ 승문원은 외교 문서 작성을 담당하였다.
④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문 6.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가 왕에게 아뢰었다. “삼교는 술의 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하는데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않으니, 소위 천하의 도술(道術)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청하오니 당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해 와서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 『삼국사기』 —

- ①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하였다.
- ② 천리장성의 축조를 맡아 수행하였다.
- ③ 수나라의 군대를 살수에서 격퇴하였다.
- ④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한성을 점령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밑줄 친 ‘그’에 해당하는 인물은 연개소문이다. 643년 보장왕 때 연개소문의 건의로 당 태종으로부터 숙달 등 도사 8인과 도덕경을 얻어왔다.

[정답 해설]

② 연개소문은 천리장성 공사를 감독하면서 요동의 군사력을 장악한 뒤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과 자신을 반대하는 대신들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우는 동시에 스스로 대막리지가 되었다(642).

[오답 피하기]

- ① 당에 건너가 나당 동맹을 체결(648)한 인물은 김춘추이다.
- ③ 살수대첩(612)에서 수나라 군대를 격퇴한 인물은 을지문덕이다.
- ④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한 것은 고구려 장수왕이다.

문 7.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이 귀산 등에게 말하기를 “세속에다 5계가 있으니, 첫째는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기는 것, 둘째는 효도으로써 아버지를 섬기는 것, 셋째는 신의로써 벗을 사귀는 것, 넷째는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 것, 다섯째는 생명 있는 것을 죽이되 가려서 한다는 것이다. 그대들은 이를 실행함에 소홀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제시하였다.
- ② 화엄 사상을 연구하여 『화엄일승법계도』를 작성하였다.
- ③ 왕에게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글을 지어 바쳤다.
- ④ 인도를 여행하여 『왕오천축국전』을 썼다.

정답 ③

[자료 분석]

세속오계는 신라시대 화랑이 지켜야 했던 다섯 가지 계율로, 원광이 작성했다. 세속오계는 사군이충(事君以忠)·사친이효(事親以孝)·교우이신(交友以信)·임전무퇴(臨戰無退)·살생유택(殺生有擇)의 다섯가지 계율로 되어 있다.

[정답 해설]

③ 원광은 608년(진평왕 30)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기 위해 결사표를 작성하였다. 원문은 전하지 않지만 『삼국사기』에 의하면, 611년에 신라에서는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이 결사표로 군사를 청했고, 이에 수나라 양제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612년에 고구려를 침략하였다고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원효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종파의 대립을 조정하려 하였다.
- ② 의상은 당에서 돌아와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 ④ 혜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서역) 여러 나라의 성지를 순례하고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문 8. (가), (나)에 들어갈 이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는/은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과 상공업 육성 등을 역설하였다. 한편, (나)는/은 중국 및 일본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해동역사』를 편찬함으로써, 한·중·일 간의 문화 교류를 잘 보여주었다.

(가) (나)

- ① 박지원 한치윤
- ② 박지원 안정복
- ③ 박제가 한치윤
- ④ 박제가 안정복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박제가는 청에 다녀온 후 저술한 『북학의』에서 청 문물의 적극적 수용,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신분제 타파 등을 주장하고, 검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하였다. 『해동역사』는 조선후기 실학자 한치윤이 단군조선으로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역사를 저술한 책이다.

문 9.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정중부와 이의방이 정변을 일으켰다.
(나)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
(다) 충주성에서 천민들이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
(라) 이자겸이 척준경과 더불어 난을 일으켰다.

- ① (가) → (나) → (라) → (다)
- ② (가) → (다) → (나) → (라)
- ③ (라) → (가) → (나) → (다)
- ④ (라) → (가) → (다) → (나)

정답 ③

[정답 해설]

(라) 1126년 인종은 이자겸의 권력에 불안을 느껴 그를 제거하려 했으나 이자겸이 한안인 등 인종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고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가) 1170년(의종 24) 정중부, 이의방 등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무신정변).

(나) 1196년 최충헌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다) 몽골의 1차 침입 당시(1231)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당시 몽골의 살리타는 개경을 포위하고 휘하의 별동부대로 하여금 양주·광주·충주·청주 등 여러 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충주에는 부사 우종주가 양반별초를, 판관 유홍익이 노군과 잡류별초를 거느리고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몽골병이 공격하자 우종주·유홍익과 양반별초는 성을 버리고 달아났고, 노군과 잡류별초만이 남아 몽골군을 물리쳤다.

문 10.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삼한(三韓) 산천의 음덕을 입어 대업을 이루었다. (가)는/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뿌리가 되니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다. 왕은 춘하추동 네 계절의 중간달에 그곳에 가 100일 이상 머물러서 나라를 안녕케 하라.

— 『고려사』 —

- ① 이곳에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재조대장경을 만들었다.
- ② 지눌이 이곳에서 수선사 결사 운동을 펼쳤다.
- ③ 망아·망소이가 이곳에서 봉기하였다.
- ④ 몽골이 이곳에 동녕부를 두었다.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은 고려 태조가 남긴 『훈요 10조』의 일부로, (가)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경이다. 태조는 서경이 풍수지리상의 길지라는 이유를 들어 해마다 순수하여 100일을 머무르도록 당부했다.

[정답 해설]

④ 1269년(원종 10) 서북면병마사의 최탄 등이 임연을 친다는 구실로 난을 일으킨 뒤, 서경을 비롯한 북계의 54성과 자비령 이북 서해도의 6성을 들어 원나라에 투항하였다. 이를 계기로 원의 세조는 이듬해 자비령을 경계로 삼아 그 이북 지방은 모두 원나라의 소유로 한 뒤 서경에 동녕부를 설치하고 최탄으로 동녕부 총관을 삼았다.

[오답 피하기]

- ① 몽골 침략으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고려 고종 때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16년(1236~1251) 만에 재조대장경을 완성하였다.
- ② 지눌은 무신 정권 시기 순천 송광사(길상사)를 중심으로 결

사 운동을 전개했다.

- ③ 정중부 집권기인 1176년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 형제가 신분 해방을 외치며 봉기하였다.

문 11. 다음 내용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경전과 중국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실에 이르러서는 잘 알지 못하니 매우 유감이다. 중국 역사서에 우리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하게 실리지 않았다. 또한, 삼국의 고기(古記)는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며 빠진 부분이 많으므로, 이런 까닭에 임금의 선과 악, 신하의 충과 사악, 국가의 안위 등에 관한 것을 다 드러내어 그로써 후세에 권계(勸戒)를 보이지 못했다. 마땅히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별처럼 빛나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 ① 불교를 중심으로 신화와 설화를 정리하였다.
 ②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③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통사이다.
 ④ 진흥왕의 명을 받아 거칠부가 편찬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사료는 1145년(인종 23)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인종에게 바치면서 올린 글(진삼국사기표)이다.

[정답 해설]

- ② 인종 때에는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충렬왕 때에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③ 조선 초기 성종 때 편찬된 『동국통감』은 서거정 등이 고조선(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이다.
 ④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문 12.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고자 감은사를 처음 창건하려 했으나, 끝내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용이 되었다. 뒤이어 즉위한 이 왕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금당 돌계단 아래에 동쪽을 향하여 구멍을 하나 뚫어 두었으니, 용이 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하려고 마련한 것이다. 유언에 따라 유골을 간직해 둔 곳은 대왕암(大王岩)이라고 불렸다.

— 『삼국유사』 —

- ①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②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③ 백성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하였다.
 ④ 진골 출신으로서 처음 왕위에 올랐다.

정답 ②

[자료 분석]

밑줄 친 ‘이 왕’은 신라 중대의 국왕인 신문왕이고, 자료는 신문왕의 감은사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다. 감은사는 682년(신문왕 2) 신문왕이 부왕 문무왕의 뜻을 이어 건립하였으며, 사지의 부근인 동해바다에는 문무왕의 해중릉(海中陵)인 대왕암(大王巖)이 있다.

[정답 해설]

- ② 신문왕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한 국학을 설립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왕은 신라의 법흥왕이다.
 ③ 백성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한 왕은 통일 신라의 성덕왕이다.
 ④ 진골 출신으로서 처음 왕위에 오른 인물은 무열왕(김춘추)이다.

문 13.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은 노론과 소론, 남인을 두루 등용하였으며 젊은 관료들을 재교육하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또 서얼 출신의 유능한 인사를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하였다.

- ① 동학이 창시되었다.
- ②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다.
- ③ 신해통공이 시행되었다.
- ④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정답 ③

[자료 분석]

초계문신제 시행, 서울 출신의 유능한 인사를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왕’이 조선 후기의 임금인 정조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③ 정조 때에는 당시 좌의정이었던 채제공의 건의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신해통공, 1791)하여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진작시켰다.

[오답 피하기]

- ① 동학은 철종 때인 1860년에 경주 출신의 몰락 양반 최제우가 창시하였다.
- ② 정조 때에는 『대전회통』이 아니라 『대전통편』이 편찬되었다. 『대전회통』 편찬은 흥선 대원군 집권기의 사실이다.
- ④ 홍경래의 난은 1811년 순조 때 일어났다.

문 14.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종이 죽고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되자, 고종의 아버지인 (가)가/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가)는/은 임진왜란 때 불탄 후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때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을 징수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당백전이라는 화폐도 발행되었다.

- ① 「대한국국제」를 만들어 공포하였다.
- ② 서원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③ 우정충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켰다.
- ④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가져와 널리 유포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고종의 아버지라는 내용과 경복궁 중건 등의 내용을 통해 (가)에 해당하는 인물이 흥선 대원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 흥선 대원군은 전국의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철폐하였다. 당시 서원은 지방 양반들의 세력 기반이 되어 각종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누렸고, 지역 농민을 가혹하게 수탈하여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서원 철폐로 국가 재정이 늘고 민생이 안정되자 백성은 이를 크게 환영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대한민국 국제는 흥선 대원군 하야 후인 1899년에 반포되었다.
- ③ 1884년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는 우정충국의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민씨 세력 중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고 개화당 정부를 구성하였다(갑신정변).
- ④ 1880년 2차 수신사로 파견된 김홍집은 일본에서 청의 외교관 황준헌(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가져와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으며, 고종에게 일본의 발달된 모습을 보고하였다.

문 15. (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탐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독립 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이후 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이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사이에는 독립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가/이 만들어졌다. (가)는/은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다.

- ①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였다.
- ② 국내와의 연락을 위해 교통국을 두었다.
- ③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 ④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삼아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정답 ②

[자료 분석]

(가)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고, 자료는 3·1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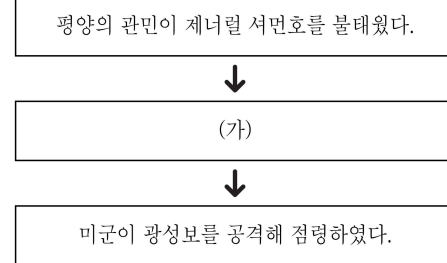
[정답 해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와의 항일 세력과 연락하기 위해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대동단결선언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1919) 전인 1917년 중국 상하이에서 신채호, 조소앙, 신규식, 박은식 등 14인의 명의로 발표된 선언으로 임시 정부 수립의 당위성을 밝히고, 대한 제국의 영토·인민·주권을 계승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③ 신민회의 이회영, 이상룡 등은 남만주 삼원보에 신한민촌을 건설하였고, 이곳에서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를 세웠다(1911). 신흥 강습소는 군사 교육을 실시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고, 이후 신흥 무관 학교로 발전하였다(1919).
- ④ 김원봉의 요청으로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을 강령을 삼아 의열 투쟁을 전개한 단체는 의열단이다.

문 16.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고종이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 ② 일본의 윤요호가 초지진을 포격하였다.
- ③ 오페르트가 남연군의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 ④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은 군인이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정답 ③

[자료 분석]

첫 번째 사건은 1866년에 일어난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자료는 1871년에 일어난 신미양요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해설]

- ③ 1868년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오페르트는 미국인 젠킨스와 프랑스 선교사 페롱의 도움을 받아 충남 덕산에 있는 남연군(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여 유해를 미기로 통상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이 사건으로 반외세 감정이 고조되고 흥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의지가 강화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제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은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독립서고문을 바치고, 국정 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1894. 12.).
- ② 일본은 흥선 대원군이 물러난 뒤, 무력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려 하였다. 일본은 군함 윤요호를 동원하여 강화해역 깊이 들어와 조선 수비군의 발포를 유도하고, 초지진과 영종도를 포격하여 파괴하였다.(윤요호 사건, 1875)
- ④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임오군란은 1882년의 일이다.

문 17.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20년대 국내에서는 일본과 타협해 실익을 찾자는 자치 운동이 대두하였다.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경계하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 세력도 정우회 선언을 발표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제휴를 주장하였다. 그 결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1927년 2월에 이 단체를 창립하고 이상재를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 ①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해 물산장려운동을 펼쳤다.
- ②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시작하였다.
- ③ 문맹 퇴치와 미신 타파를 목적으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진상을 조사하고 이를 알리는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정답 ④

[자료 분석]

밑줄 친 ‘이 단체’는 신간회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여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의 협력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1927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대하여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정답 해설]

- ④ 1929년 11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는 광주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일제의 학생 운동 탄압에 항의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 보고를 위한 민중 대회를 열어 이를 전국적인 항일 운동으로 확산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전에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신간회 간부들이 체포되었고, 민중 대회는 열리지 못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1920년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여 물산 장려 운동 1을 시작하였고, 1923년 경성에서도 조선 물산 장려회가 만들어지는 등 물산 장려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 ② 이상재 등이 중심이 된 조선 교육회의 제안으로 경성에서 조선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가 만들어졌다(1922). 이를 바탕으로 출범한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벌였다(민립 대학 설립 운동).

- ③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학생 계몽대를 만들어 브나로드 운동 4을 전개하였다. 각 지방의 마을마다 야학을 만들어 한글을 가르쳤고, 미신 타파·구습 제거·근검절약 등을 강조하며 계몽 활동도 펼쳤다.

문 18.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개항장 및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할 권리를 가지며, 이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在)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였던 모든 권리를 집행한다.

- ① 조선총독부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② 헤이그 특사 사건 직후 일제의 강요로 체결되었다.
- ③ 방곡령 시행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합의가 실려 있다.
- ④ 일본의 중재 없이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답 ④

[자료 분석]

자료는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이다. 을사늑약 제3조에는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고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에게 내알하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였다.

[정답 해설]

- ④ 일제는 을사늑약에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라고 명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일제는 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이후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다(1910).
- ② 헤이그 특사 파견은 1907년 6월의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

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 신탁약(정미 7조 약)을 체결하였다(1907. 7.).

- ③ 1883년 체결된 개장 조·일 통상 장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 장정의 제37관에는 만약 조선국에 가뭄·수해·병란 등의 일이 있어 국내 식량 결핍을 우려하여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쌀의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고해야 한다.

문 1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들은 한국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시행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미국과 소련이 (가)를/을 개최해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1946년 3월 서울에서 (가)가/이 시작되었다.

- ① 미·소 양측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②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 성과를 냈다.
 ③ 민주 공화제를 핵심으로 한 제헌헌법을 만들었다.
 ④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답 ①

[자료 분석]

(가)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이다. 1945년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 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이 회의에서 한국 문제도 다루었는데, 민주주의 임시 정부의 수립과 이를 돕기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실시 등이 결정되었다.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 사항에 따라 1946년 3월에는 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정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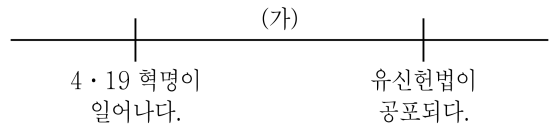
- ① 1946년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미소 공동 위원회와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에 관한 합의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놓고 대립하였다.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반대하는 세력은 참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인 신탁 통치안에 반대하더

라도 참여를 원하는 모든 단체가 합의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미국과 소련의 의견 대립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결렬되어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다.

[오답 피하기]

-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전인 1945년 8월에 조직되었다.
 ③ 제헌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 7월의 일이다.
 ④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설치하고,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통일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문 20.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다.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다.
 ③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다.
 ④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정답 ②

[자료 분석]

연표의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 때인 1960년 4월, 유신헌법 공포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2년 12월의 일이다.

[정답 해설]

- ②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 정보 부장을 비밀리에 북한에 보내 김일성을 만나게 하였고, 이러한 남북 간의 비밀 접촉으로 1972년 7월 ‘7·4 남북 공동 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제헌 국회에서는 제헌 헌법에 근거하여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③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는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④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에 일어났다.